

템플스테이 일본 연수 체험기

진정한 감동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지난해 12월 14~18일 일본 일원에서 템플스테이 지도자, 실무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생활불교가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일본 불교의 실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본지는 연수에 참가한 관음종 묘각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여 스님의 연수 체험기를 정리했다.



일본 조동종 영평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연수참가자들. 일본불교 특유의 절제미를 느낄 수 있었다.

잠시 소임을 놓고 마음 편히 길을 떠나본 게 언제였던가. 낙산 묘각사의 템플스테이를 10년을 운영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여유를 찾아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일원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실무자 연수는 내 수행생활에 침표를 찍는 여정이기도 했다. 당연히 오래 전 일본인들의 생활로 자리잡은 일본불교의 면모를 알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젠(Zen)' 열풍을 일으킨 그 저력을 알고 싶었다.

이번 연수는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영평사와 천태종 총본산 연려사, 진언종의 성지 고야산 등 일본 불교의 정수가 담긴 사찰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곳은 첫날 묵었던 영평사다. 일본 조동종 시조 도원(道元)선사님이 개창했으며, 가람은 산문, 불전, 법당, 승당, 고원, 육사, 동사의 7당 가람으로 잘 구축돼 있다. 무엇보다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영평사 스님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했다. 특히 요소요소에 스님들이 배치돼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심지어는 정진요리의 서빙도 스님들이 했다) 생활이 곧 수행이라는 시조의 수행 가풍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영평사 역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유사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질은 한국불교가 더 높았다. 사실 체험이라기보다는 견학에 가까웠다. 한국 템플스테이의 경우 운력, 예불, 108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지만 영평사는 일본식 차수와 합장을 가르쳐 주고 새벽 예불은 참관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 이를 볼 때 한국불교의 템플스테이는 세계의 관광문화자원일 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함의하고 있음을 새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찾은 연려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태종 총본산의 유서 깊은 고찰이다. 일본불교의 모든 시작이 이곳 연려사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화경 수행도량이기도 한 이곳의 수행방법은 독특하다. 산 하나에 걸쳐 펼쳐진 광대한 연려사의 사역 내에 있는 동서탑을 왕복하며 도량석을 도는 것이 이들의 수행법이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만 반나절이 걸린다.

절제미 돋보인 조동종 영평사 수행자적 삶 느껴
동대사 등 일부 사찰 자유 견학은 아쉬움 남아
템플스테이는 휴식형보다 체험형으로 진행해야

법화경 수행도량만큼 이들은 '선교 일체'를 중요시 하고 있었다. '경(經)과 선(禪)을 나란히 하라'는 이들의 수행가풍에서 일본불교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교리를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했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3일째에는 나라의 동대사를 들렀다. 남도(南都) 7대사의 하나인 동대사는 745년에 성무왕(聖武王)의 발원으로 창건됐으며, 본존은 비로자나불로 앉은 키 16m, 얼굴 길이가 5m나 돼 속칭 '나라 대불'이라고 한다.

중심인 금당(金堂)은 에도(江戸)시대에 재건된 것으로서 높이 47.5m나 되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이다.

이곳은 40분 정도 자유 견학을 했다. 대략적인 역사와 의미는 가이드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심층적인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식의 관람은 연수가 아닌 여행자에게도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국의 템플스테이 역시 외국인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휴식형을 지양해야 한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게 하기보다는 한국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한다. 무엇보다 템플스테이는 그 사찰에 묵는 동안 사찰과 불교의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동대사를 뒤로 하고 찾은 곳은 일본 진언종이 태동한 고야산이었다. 고야산에는 일본불교의 성지인 금강부사(金剛峯寺)를 중심으로 117개 사찰이 있으며,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본의 국보 중 2%가 이곳에 있다.

고야산 일대를 둘러보고 일행이 들린 곳은 적송원이라는 곳이었다. 사찰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웠다. 위생상태도 영평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사찰 요리였지만 영평사와는 달리 대부분의 스님들이 한 손가락도 뜨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워낙 유명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인들 많이 찾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불교에 대해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었다.

연수는 사전왕사와 천수각 견학을 끝으로 4일 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돌아오는 길, 10년 간 운영했던 묘각사 템플스테이가 떠올랐다. 첫 해 한명의 외국인도 오지 않았던 사찰이 이제는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외국인 참가자가 드나드는 곳이 됐다. 단순히 묘각사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통과 현대의 사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통에 머물러만 고루해지고 현대에 치우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불교는 '감동'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감동이 없는 불교는 누구도 치우칠 수 없다. 이는 현대인이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설 수 있는 하심(下心)도 필요하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지도 법사와 실무자들이 매일 감동이 환희이어야 한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삶에 환희심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매일을 부처님 가피를 받아 감동할 수 있는 삶을 내 자신이 먼저 사는 것이 다른 이들 감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감동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이번 연수의 교훈이었다.



여여 스님 (관음종 묘각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社說

전통문화 발전 예산 올바로 집행해야

2013년도 정부 예산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불교문화 전승, 보존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105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110억 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20억 원) ▷가산불교대사림 편찬(6억 원) 등이 편성됐으며, ▷불교전통문화 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억 원) ▷호국불교 의승군 연구 및 서산대제(3억 원)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1억 2천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의 2013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역시 2,13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30억여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불교계에 대한 올해 국고 지원은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건물 복사가 아닌 아카이브 구

축과 가산대사림 편찬, 의승군 연구 등 전통 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올바로 집행해야 한다. 실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심사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27.5%의 낮은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현재 67%의 계약률과 38%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낮은 준공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삼보 정재와 같은 국민들이 혈세가 십시일반 모인 것이다. 이유가 어찌됐던 국고가 투입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낭비되는 것이다. 예산만 놓고 보면 전통불교문화 발전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불교계의 몫이다.

장학 불사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하자

젊은 동량들을 키워내는 불교계 장학 사업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인재불사중 하나다. 현재 불교계서 운영되는 장학단체는 대략 50개 정도다. 대표적인 곳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성준장학재단, 행원문화재단 등이다.

불교계 장학사업은 1964년故 이한상 씨가 설립한 삼보장학회가 출발점이다. 이후 1970년대에 서울 도선사와 봉은사, 부산 내 월경사 등 대형사찰들을 중심으로 장학단체들이 생겨났다. 이후 1990년대까지는 장학사업이 명맥만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대형 장학재단이 속속 설립됐다. 재가불자 산행모임인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회비로 조직한 길상화장학금도 이때부터 운영됐다. 특히 길상화장학금은 신도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매년 6500만 원씩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총 450여 중 고생에게 총 6억 여원이 전달돼기도 했다.

90년대 이후 소장 학자들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장학금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특히 행원문화재단은 올해로 22번째 행원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시상금액만 6억여원에 달한다. 1978년 화엄승가장학재단으로 출발해 1992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화엄종장학회도 매년 4800만원씩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 장학사업은 우리 사회에 동량을 키우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불교계 사찰 장학금의 특징은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지역 인재들을 양성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학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대형재단 외 대부분의 장학재단 자산이 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수의 규모가 줄어 외부 후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럴때일수록 불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교육 불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박경수	010-9822-83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